



이종범·서재응·양현종 등 KIA 선수들

중학야구선수권 응원 나선 까닭은?

학부형으로서... 선배로서... 꿈나무들 사랑 과시

8일 KIA 타이거즈는 대구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광주에 남아있던 2군 선수단에게는 5일만에 찾아온 친근같은 휴식일.

무등경기장을 안방으로 삼고 있는 KIA 선수들이 자리를 비웠지만 경기장은 야구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무등경기장에서는 제 58회 중학야구 선수권대회 예선전이 열렸다. 오전 10시 동성중과 무등중이 대결을 벌였고, 오후 경기에서는 충장중과 진흥중이 격돌했다.

동성중과 무등중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진흥중은 충장중을 5-4로 꺾고 승리를 챙겼다.

아마 꿈나무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에 대한 배들의 응원전까지 더해지면서 야구장은 시끌시끌했다.

이날 KIA 최고참 이종범과 이범호·김상현·이유규 등 타자들과 투수 서재응·윤석민·양현종·차정민 등 광주 잔류조는 2군 휴식과는 별도로 훈련을 실시했다.

웨이트와 러닝 등을 하며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은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전에도 나섰다.

꼬꼬마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동성중 출신의 양현종은 경기 결과를 확인하면서 후배 사랑을 과시했고, 충장중 출신의 서재응은 오후 러닝이 끝난 후 덕아웃 뒤쪽에 자리까지 잡고 앉아 경기를 지켜봤다. 모교 후배들의 경기인데다 친형인 서재환 코치가 충장중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재응은 KIA의 특급 응원단장답게 후배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반응을 보이며 응원을 보냈지만 결과는 아쉽게 4-5, 후배들의 패배로 마무리 됐다. 역시 서재응의 충장중 선배인 이종범과 김경진 2군 매니저도 경기가 끝난 후 후배들의 집을 쾅겨주면서 자상함을 보였다.

충장중 대선배인 이종범은 이날 학부모 역할도 겸했다. 이종범은 서석초 야구부 주장으로 맹활약했던 아들 정후군이 올 시즌 무등중으로 진학을 하면서 중학생 학부형이 됐다. 무등중 경기가 오전에 열리면서 이종범은 아들과 함께 경기장에 출근해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선배들 보기 부담스럽다”는 핀잔을 들은 이종범은 무등중 덕아웃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번 예선전은 10-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계속된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꼬마 숙녀의 묘기 농구

미국 워싱턴 베리즌 센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세계 최고의 묘기농구단 할렘 글로브 로터스와 워싱턴 제너럴스와의 특별경기 중에 꼬마 숙녀가 손가락 위에서 불을 돌리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창당 8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할렘농구단은 그간 118개국, 1억2500만명의 팬들 앞에서 환상적인 덩크슛과 화려한 드리블, 익살맞은 개그 플레이로 '엔터테인먼트 농구'의 정수를 선물을 왔다.

미국 워싱턴 베리즌 센터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세계 최고의 묘기농구단 할렘 글로브 로터스와 워싱턴 제너럴스와의 특별경기 중에 꼬마 숙녀가 손가락 위에서 불을 돌리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창당 8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할렘농구단은 그간 118개국, 1억2500만명의 팬들 앞에서 환상적인 덩크슛과 화려한 드리블, 익살맞은 개그 플레이로 '엔터테인먼트 농구'의 정수를 선물을 왔다.

/연합뉴스

김병현 마무리 짬

시범경기 첫 세이브

방향을 잡고 일본프로야구에 정착한 '봉운아' 김병현(32·라쿤테스)이 시범경기에서 첫 세이브를 올리며 마무리 투수로 입지를 다졌다.

김병현은 8일 일본 히로시마현 마쓰다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시범경기에서 6-3으로 앞선 9회 마무리 투수로 등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를 지켰다.

9회 말에 시작하면서 마운드를 물려받은 김병현은 첫 타자인 이시이 다쿠로우를 볼넷으로 걸어 내보내며 초반에 흔들렸다.

그러나 이어 나카하시 나오키를 투수 팻볼로 잡아낸 김병현은 아카마쓰 마사토가 치 유격수 팻볼로 잡아 한숨을 돌렸다.

김병현은 아마야 소우이치로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배타당 타자 마에다 도모노리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경기를 끝마쳤다.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경기에서 나선 김병현은 첫 볼넷과 안타를 내렸으나 무실점으로 1이닝을 막아 귀중한 첫 세이브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 시범경기 첫 홈런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린 이승엽(35·오릭스)은 첫 홈런경기에서 승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벌어진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시범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승엽은 삼진만 2차례 당하고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KIA 올 시즌에도 군산 홈 9경기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도 군산 나들이에 나선다.

KIA는 9일 군산시청에서 김조호 단장과 문동신 군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홈경기 개최 협약을 열었다.

이에 따라 KIA는 5월20~22일 한화전과 6월10~12일 LG전 그리고 7월5~7일 넥센전 등 총 9경기를 군산에서 치르게 된다.

군산은 3월 중에 경기가 열릴 월명야구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갖고 프로야구 개최에 대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 있다.

한편 올 시즌 군산 홈경기중 우선 취소된 경기는 광주에서 열린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클리브랜드 대들보 스타로

美 블리처리포트 선정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주포' 추신수(29)가 메이저리그 29개 구단 특급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팀의 간판으로 공인받았다.

미국의 스포츠잡지 '블리처리포트'는 8일 2011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서 대들보 같은 스타를 한 명씩 추린 뒤 클리블랜드의 대들보로 추신수를 선정했다.

'블리처리포트'는 추신수에 대해 "경기에서 잘 조망되지 않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신수는 올해 클리블랜드에서 플타인 3년차에 접어들고 지

난 3년간 해마다 성적을 향상해 왔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플타인 출신 첫 해이던 2008년 홈런 14개에 66타점을 남겼고, 2009년에는 홈런 20개, 타점 86개의 성적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홈런 22개를 터뜨리고 90타점을 올려 한 시즌 개인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블리처리포트'는 또 "클리블랜드는 지난해 왼쪽 무릎 수술한 볼타자 그레디 사이즈모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망주를 육성해야 하는 아주 젊은 팀"이라고 평가하면서 "해결사인 추신수가 희망"이라고 썼다.

1900년 이후 현대 야구 기록이 자리를 잡은 이래 클리블랜드 타자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외야수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한국 팬들에 '황제 샷' 보여줄까

내달 14일 방한... 골프 캠프 참가

타이거 우즈(미국)가 4월14일 한국을 방문해 팬들과 만난다.

나이키골프 코리아는 우즈가 한국, 중국, 일본의 주니어 및 아마추어 골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즈의 방한은 2004년 제주에서 열린 스킨스 게임 출전 이후 7년 만에 상사되는 것이다. 우즈와 함께하는 골프 캠프에 참가하려면



나이키골프의 "메이크 잇 매터(Make it Matter) 홈페이지 (twtour.nikegolf.co.kr)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나이키골프는 이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발해 4월 초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인비 2주 연속 日정상 도전

세계랭킹 9위로 경쟁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인비(23·팬코리아)가 세계랭킹 9위로 뛰어올랐다.

지난 6일 열린 J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다이진 오픈 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6.61점을 얻어 7일 발표된 세계여자골프랭킹에서 1주 전보다 4계단 상승했다.

청아니(대만)가 변함없이 1위를 지켰고 신지애(23·미래셋)가 2위, 최나연(24·SK텔레콤)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박인비는 JLPGA 투어 2011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데 이어 2주 연속으로 정상 정복에 나선다.

/연합뉴스

양용은 캐딜락 챔피언십 출전

세계랭킹 29위로 상승

지난 7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준우승한 양용은(39)의 세계 랭킹이 경쟁 뛰어올랐다.

이날 발표된 세계 골프랭킹에서 3.23점을 받은 양용은은 지난주 43위에서 29위로 대폭 상승해 재미교포 선수를 포함한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마르틴 카이머(독일)가 8.24점으로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고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루크 도넬드(잉글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한편 양용은은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WGC 시리즈의 두 번째 대회인 캐딜락 챔피언십에 출전,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철녀' 루이나이웨이 여류국수전 3연패

'철녀' 루이나이웨이 9단(47세)은 8일 성동구 흥익동 한국기원 4층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6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김윤영 3단(21세)을 맞아 흑으로 203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우승상금은 1100만원.

지난달 22일 열린 1국에서 선승했던 루이 9단은 이로써 2-0 완봉으로 김윤영을 누르고 여류국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대회 통산 8번째 우승이다. 이번 결승전은 현역 여류명인(루이)과 여류기성(김윤영) 간의 대결이자 기성세력에 도전하는 신세력의 구도로 관심을 모았으나,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국과 2국 모두 힘에서 루이가 우위를 보였다.

지난달 강력한 도전자 조혜연 9단을 제압하며 여류명인전 7연패(連霸)에 성공한 루이는 여류국수전에서도 3년 연속 우승하며 자신의 견제를 과시했다.

토종 최강인 조혜연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윤영이 힘없이 물러나면서 당분간 한국여류바둑계에선 루이의 독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시/읍/면/동	면적	대상	010-7570-7525	속박/채권/상가	010-8033-0114	공공/토지	010-5679-0005
신지	면적	대상	010-7570-7525	속박/채권/상가	010-8033-0114	공공/토지	010-5679-0005
신지	면적	대상	010-7570-7525	속박/채권/상가	010-8033-0114	공공/토지	010-5679-0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블루로드 그랜드 호텔
대지 683평
건물 2148평(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액 80억원
매매가액 45억원(협의후결정)

광주유봉동 하미스포크스
대지 4073평
건물 12943평(지하3층 지상12층)
감정가액 516억원
매매가액 160억원(시설별매도, 협의후결정)

광주 삼구지구 메가박스
대지권 610평
건물 2665평(영화관10개관)
감정가액 232억원
매매가액 90억원(협의후결정)

목포 세종병원
대지 7867평
건물 2510평
매매가액 126억원
매매가액 66억원(협의후결정)

해남 양갈문도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감정가액 83억원
매매가액 35억원(협의후결정)

전주 노송병원
대지 548평
건물 2209평
감정가액 75억원(지하3층 지상8층)
매매가액 40억원(협의후결정)

* 유동화 자산매각은 유동회사이 유일부동산
이나 경제실태중심 물건을 매수인에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전문상담 ☎ 010-7570-7525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
부동산경매전문가(실무)과정
1학기(15주) 수강생모집 2011년 3월 8일까지 마감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실무교육반 50명상당 및 서류접수 236-3400

병원, 교회, 사옥, 모텔,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급 매매
사구 마름동, 생산녹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농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중 15,818㎡(4,784평) 전용되어 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쉼터, 적절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401평) 임대 내용 : 보습중 2인 1차 5백원 월 7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8000 (상무지구 5.18기년 공원사거리)

☎ (FAX) 223-1772 ☎ 011-602-2532 (공무원형 신분증만, 대전형 신분증은 안됨)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8000 (상무지구 5.18기년 공원사거리)

☎ (FAX) 223-1772 ☎ 011-602-2532 (공무원형 신분증만, 대전형 신분증은 안됨)

대인동실업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과 배연실 분 손실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임대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
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
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223-1772 ☎ 011-602-2532 (공무원형 신분증만, 대전형 신분증은 안됨)